불가항력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

올해초 어느한 나라의 정세분석가는 2022년은 세계정치의 불확실성의 원년이 될것이라고 피력한바 있다.

그 예단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날로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가 그대로 립증해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정치와 경제, 평화와 안정 등이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세인의 우려와 공포는 날로 가중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시련과 난관, 압박과 위협의 중압은 전례없는것이지만 그 모든것을 격파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비약하고있다.

하다면 거창한 부국강병의 대업을 자기의 시간표대로 주춤없이 실현해나가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그 진함없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주체조선특유의 불가항력.

바로 여기에 그 대답이 있다.

그 어떤 도전과 장애속에서도 자그마한 흔들림도, 순간의 답보도, 사소한 변침도 모르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견인해나가는 그 위대한 불가항력으로 특기할 사변들과 기적들을 아로새겨온 2022년의 날과 달들에서 찾아보게 된다.

다시금 과시된 일심일체의 위력

주체111(2022)년 6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둘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결론에서 지난 6개월간 국가정치활동과 관리, 국가의 발전과 위기대응관리측면에서 거둔 진일보의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상반년기간 여러 정치적계기를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정신을 제고하고 당과 국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시위

하였다. …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며 나라마다 자랑하는 제가끔의 재부가 있다.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원, 막강한 경제력…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재부가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 정과 사랑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이 세상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며 여기에 어떤 역경속에서도 두려움없이 밝은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강위력한 힘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

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충심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성새를 높이 쌓았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붉은기를 더욱 빛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여 그 불패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신다.

2016년 10월 10일에 있은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당의 두리에 한마

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상징이며 일심단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도 바로 일심단결이 있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쩔수 없기때문이라고 하시며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우리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는데 대하여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힘이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를 새겨주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우리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막아서는 격난들을 단호히 짓부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날과 달을 승리와 영광으로 새겨올수 있었다.

올해의 잊지 못할 나날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올해에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은 도전과 장애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것이였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전쟁도발책동, 사상최악의 경제제재와 봉쇄, 련이어 들이닥치는 자연의 광란…

설상가상으로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도 할수 있는 악성비루스의 전파는 매 사람의 생명을 모질게 위협하며 곤난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어려움과 난관은 중첩되였어도 이 땅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였다. 천만인민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기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령도자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땅을 박차고 솟아오른듯 짧은 기간에 너무도 놀라운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친 송화지구와 화성지구, 련포와 검덕, 신화적인 개발속도로 행성을 진감시킨 주체병기들의 성공폭음,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짓부시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는 공업기지들, 횡포한 대자연의 광란을 이겨낸 황금전야…

남들 같으면 하루아침에 물러나앉았을 그 혹독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현실들이 자랑스럽게 펼쳐질수 있은것은 바로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왔기때문이다.

일심단결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한번 마련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공고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년초석인 일심단결의 힘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진할줄 모르는 위력을 발휘하는것인가.

가장 공고한 단결의 원천은 바로 인민에 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다.

이 귀중한 철리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따라 질풍쳐 달려온 올해의 장엄한 투쟁의 나날들이 력력히 새겨주고있다.

되새겨볼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안고 2022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던 환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기신 위민헌신

의 자욱과 더불어 빛나는 혼연일체의 불멸할 화폭들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를 전하여준다.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새해의 첫아침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진행된 소식에 접하던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전원회의에 관한 소식이 실린 당보를 펼쳐들며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던가.

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신 지면에 커다란 활자로 씌여진 글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이 글발에서 우리 인민은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더욱 뜨겁게 품어안아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

의 의지를 다시금 새겨안았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격난도 맞받아 뚫고헤치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보다 더 뜨거운 진정을 읽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에 제시된 과업들을 되새겨보아도 인민의 마음은 더욱 후덥게 달아오른다.

경제사업에서 기본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켜 2022년도에 계획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을데 대한 문제, 온 나라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부문에

서 물고기생산을 늘이고 양어와 양식을 잘하는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올해에도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의 안녕과 보다 큰 행복을 위함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전원회의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은 눈물겹게 새겨안았다.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기 위해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멸사복무의 성스러운 려정을 더욱 줄기차게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억척의 의지를.

올해의 승리에 대한 그이의 확신에 넘친 선언에서도,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을 애국열로 끓여주는 그이의 심장의 호소에서도 인민은 온넋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해 당과 국가

의 제일중대사도 인민의 안녕과 행복, 복리증진을 위한것으로 일관시키시고 올해에 기어이 쟁취하여야 할 보다 큰 승리도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서 확신하신다.

참으로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경애하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투철한 멸사복무정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으로 충만된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감동깊은 서사시와도 같다.

뜻깊은 새해의 첫날 인민이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은 전원회의소식만이 아니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국땅 그 어디서나 또다시 뜨거운 감격으로 세차게 설레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영광의 그날 그이께서 만나주신 사람

들은 다 근로의 땀과 노력으로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데 이바지한 로동자, 농민이고 탄부, 방직공이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한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였다. 그들자신의 소박한 말그대로 공화국공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서 자란 아들딸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려고 애써 일해왔을뿐이다.

그런 그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니 한없는 영광을 받아안은 주인공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지금도 영광의 그 시각을 돌이켜볼때면 눈물이 솟구칩니다. 글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저의 장알박힌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에 있

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몸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은 평양화력발전소 타빈직장 로동자의 솔직한 이 심정이 다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시고 평범한 인간들의 응당한 소행도 값높이 여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가장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이심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는 이 나라 인민의 고백과도 같은것이다.

그이께서는 새해에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당풍으로, 철저한 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성실한 근로자, 참된 애국자들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그 불멸할 화폭과 더불어 위대한 새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인민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새해의 힘찬 보폭을 내짚

었다.

새해의 첫 기슭에서부터 온 나라를 감동시켰던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숭고한 세계는 날과 달을 이어가며 더욱 뜨겁게 펼쳐졌다.

2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과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펼쳐졌던 환희와 격정의 화폭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 어느때보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인민들과 한 약속을 가장 신성히 여기시고 몸소 착공식장들에 나오시여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며 착공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모두 인민들의 집집마다에 피여날 밝은 웃음을 그려보며, 그래서 더 부강해질 조국의 광명한 래일을 내다보며 힘을 내여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고 그리도 절절하게 호소하

시던 그이이시였다.

화성에 이어 련포의 하늘가에 련이어 울려퍼진 2월의 봄우뢰는 그대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천만인민의 억센 신념과 강렬한 지향, 견인불발의 의지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다.

이 땅 어디서나 우리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자원진출하는 애국청년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일을 위해 고심분투하는 참된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났다.

뜻깊은 4월에는 세계를 놀라게 한 사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

을 맞으며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솟아난 송화거리에 이어 평양의 새 경관, 세상에 으뜸가는 사회주의번화가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준공된것부터 놓고보자.

시련과 난관이 의연히 지속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웅장화려한 거리들이 기적같이 솟아오를수 있은것은 사실상 일심단결의 위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와 그이의 구상을 무조건 관철해나가려는 천만인민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공의 시각을 맞이할수 있었다.

하기에 화창한 4월의 봄날 준공식장들에 나오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

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황홀한 새 보금자리의 주인들은 마음속진정을 터치고 또 터치였다.

이 사랑, 이 은정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한다고, 세상에 다시없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겠다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을 더욱 뜨겁게 품어안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일편단심 믿고 받들려는 천만의 충성의 열도는 더욱 뜨겁게 분출하였다.

지난 4월 1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1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바로 그것을 뚜렷이 증시해주었다.

뜻깊은 태양절의 경축광장에 도도히 굽이쳐간 시위대오는 수령만세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사회주의 한길만을 가고갈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였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신념의 구호가 뢰성마냥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전체 참가자들의 두볼마다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감동깊은 화폭,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이야말로 가를래야 가를수 없고 뗄래야 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4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혼연일체의 환호성에서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의지를 보며 경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뜨거운 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경루동의 궁궐같은 새집에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그이의 축복을 받아안는 더없는 감격으로 울고웃던 공로자들의 그 행복한 모습이며 열병식행사보장에 기여한 평범한 평양시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했던 기념촬영장의 감격과 환희 그리고 따사로운 태양의 품에 너도나도 안기여들며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그 진정어린 모습들…

참으로 지나온 하루하루, 달과 달은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지고 헌신과 보답으로 이어진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

의 정이 더욱 강렬해지고 굳건해진 나날들이였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일심일체,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의 혈연적뉴대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세계가 다시한번 놀라게 한 이번 비상방역대전에서의 값비싼 승리를 통해 더욱 명백히 증명되였고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인간생활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곡절을 겪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적집단도 돌발적인 중대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다. 문제는 뜻밖에 부닥치는 그런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낼수 있는 힘이 비축되여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국가의 진정한 힘, 오늘의 방역위기를 타개해나갈수 있는 최강의 무기는 정확하고 로숙한 정치적령도와 전사회적인 일치

단결에 있다는 진리가 조선의 방역대전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다.

지난 5월 우리 경내에 급속히 전파확대된 원인모를 열병이 다름아닌 세계를 최악의 보건위기에 몰아넣은 악성전염병이라는 사실이 공표되였을 때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세계도처에서 빚어지는 대류행전염병사태의 참상을 TV와 방송을 통해서만 들어오던 우리 인민이 실재한 보건위기앞에 직면하게 되였으니 누구인들 당황하지 않았겠는가.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에 당황하여 누구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그러한 때 방역전의 승세를 주동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과감한 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도록 인민들에게 신

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동 첫날에만도 그이께서는 이른새벽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나라가 직면한 최악의 위기를 극복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하루가 다 저물어가던 깊은 밤에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귀중한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고 위험천만한 곳들까지 찾으시며 불철주야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긴장한 90여일간의 나날 그이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에 달한다.

이 수자들이 말해주듯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분분초초, 걸음걸음을 피타는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악성비루스의 특성과 치료경험, 방법과 관련한 자료들을 신문과 TV, 방송으로도 널리 소개선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누구나 신심을 가지고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악성전염병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줄곧 외우고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고는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시며 치료방법과 묘술까지 세심히 가르쳐준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참으로 최대비상방역체계하에서의 나날은 사랑하는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그 운

명을 지켜 심신을 깡그리 바치신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버이의 멸사복무의 분분초초, 사랑과 정의 나날이였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이 걱정되시여 매일과 같이 깊은 밤, 이른새벽 련이어 소집하신 뜻깊은 당회의들이며 인민사수전의 그 길에서 꽃펴나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격정의 눈물속에 접하였던 우리 인민이였다.

당과 국가의 중대사를 론의하고 대책적문제를 결정하는 정치국협의회장에서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이 온 나라에 전해졌을 때 인민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울고 또 울었다.

그 감격의 눈물이 미처 마를새가 없이 이 땅에는 다시금 격정의 바다,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또다시 소집하시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인민이 받아안은 충격은 뭐라고 말할수 없이 큰것이였다.

《우리 원수님의 로고를 우리는 미처 다 몰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도 자신은 돌보지 않으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가림없이 찾아주실가요. 생각할

수록 원수님의 사랑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악성비루스가 떠도는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밤깊도록 돌아보시며 즉시적인 비상조치들을 취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위민헌신의 자욱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당중앙이 인민사수의 최전방에 있는한 오늘의 동란은 일시적이라는 신심을 억척같이 새겨주었다.

한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믿고 의지할데가 있으며 천만시름을 다 잊고 자신과 자식들의 운명을 통채로 맡길수 있는 어버이의 품이 있다는것은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고 행운이 아닐수 없다.

닥쳐온 국난은 사상최대의 위기였지만 인민들은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온넋으로 새기며 그이 품에 더 깊이 안겨들었으며 방역대전의 참전자, 직

접적인 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무한한 힘과 용기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실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게 되면 나라의 전반령역에서 모든 래왕과 이동이 금지되고 정상적인 사업과 활동의 률동이 파괴되여 국가사업뿐 아니라 매 가정, 매 공민들의 생활에서 이전보다 난관과 애로가 몇배로 가중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그 모든것을 감수하면서 비상방역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모든 규정과 지시에 절대복종하였으며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하고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한 애국사업, 응당한 의무와 본분으로 간주하였다. 누구나 일신상의 문제와 가정사를 뒤로 미루는것을 흔연히 여기였으며 사소한 동요나 나약성, 비관과 공포도 없이 방역승리에 대한 확신과

신심에 넘쳐 특유의 강인성을 완강히 발휘하였다.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의 경우 자기 본분에 대한 책임성과 무한한 희생정신으로 악성병마와의 싸움에 헌신분투하였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주민세대들과 인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유열자들을 찾아내여 완쾌시키는 사업에 매일 보건일군 7만 1 200여명, 위생열성일군 114만 8 000여명이 동원되였으며 수천명의 보건부문 경력자들이 자원적으로 참가하여 방역대승에 기여하였다.

방역대전의 나날 수도의 670여개의 약국들에 파견된 군의부문 성원들도 어머니당의 불사약들이 시민들에게 더 빨리, 정확히 가닿게 하는 한편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여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도의 약품공급이 안정되고 전염병

형세가 역전되였을뿐 아니라 군민일치의 위력이 더한층 고조되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이 방역대전의 나날에 더 뜨겁게 흘러넘친것도 우리 국가특유의 우월성, 불가항력의 위력으로 방역전의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고락을 함께 한 사람들, 엄혹한 시련속에서 이 땅에 미덕과 미풍의 화원을 더 만발하게 꽃피운 훌륭한 사람들의 소행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악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밤낮없이 뛰여다닌 공장종업원들, 일군들도 있고 가산을 아낌없이 덜어내여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도 있으며 방조가 필

요한 세대, 곤난한 이웃들에게 사심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도 있었다.

견디기 어려운 곤난속에서도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배를 곯으면서도 성의를 다 바치는 이런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로써는 그 진가를 헤아릴수 없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누구도 가질수 없는 일심일체, 전민합세의 위력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는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방역위기를 최단기간내에 제압하고 방역형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될수 있었던것이다.

방역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수년동안 억제하지 못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전파사태를 조선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지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에 해소하고 방역안정을 되찾은 경이적인 사변을 두고 세계는 《세기적인 수수께끼》, 《전설같은 현실》이라고 찬탄하여 마지 않았다.

돌발적인 방역위기를 가장 신속히 수습하고 또다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된 유일한 나라.

세계적인 대동란속에서 우리 조국이 전취한 빛나는 명성과 영예는 결코 짧은 기간에 종식된 전염병전파상황이나 기록적인 치유률로 해서만 그 의의가 부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 행성의 절대적인 힘, 가장 강한 정신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주는 세기적인 신화이다.

이 나날 방역전선에서만이 기적이 창조된것이 아니다.

사상최악의 시련속에서 경제전선에서도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구상의 이르는 곳마다에 참혹한 재앙을 몰아온 악성전염병사태를 두고 언제인가 어느한 나라의 수반은 3차대전에 비유하였다.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고 자욱히 흐르는 포연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치르고있는 준엄한 전쟁이다.

국가정치리념과 사회관리체계, 문명발전수준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사회제도와 종합적인 국력은 물론 그 전도까지도 날날이 투시되고있는 오늘의 엄정한 시험대에서 세계는 진정한 강국의 모습을 새롭게 보고있다.

조선은 가장 강대한 힘과 정신을 가진 불패의 국가, 끝없이 창창한 앞날이 약속되여있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알고 승리를 확신하며 미래

를 락관하는 인민만큼 위대하고 강한 인민은 없으며 그런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22년 9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특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인민들모두는 지금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확고한 의지로 충만되여있다.

그 위력을 조선은 9월의 공화국창건기념일과 10월의 당창건기념일을 승리자의 대축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성대히 경

축하며 세계에 거듭 힘있게 과시하였다.

세상에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일체의 단결의 위력처럼 강한것은 없다. 그것은 력사의 어떤 시련도 다 이기고 어떤 기적도 다 창조하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고 절대병기인것이다. 물리적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위대한 사상정신적힘, 일심단결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지금보다 천백배 더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없이 오로지 승리만을 떨치며 용기백배 전진해나갈것이다.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으로

인류력사는 전쟁의 력사로 일러오고있다. 력사에 기록된 전쟁건수가 수천년동안에 무려 1만 4 500여차에 달한다고 하니 과연 전쟁으로 흘러온 력사라고 불리울만도 하다.

그 많은 전쟁들의 동기와 성격, 양상은 각이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넘볼수 있는 상대와만 할수 있는 무력충돌이라는 것이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바꾸어말한다면 자기를 지킬수 있는 무적의 힘이야말로 전쟁방지의 필수적담보이고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이다.

오랜 세월 조선반도는 그 지정학적특성으로 하여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여

왔다. 전후 근 70년간의 력사를 놓고보아도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일각 가중되였다.

아마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없었다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이 땅은 벌써 열백번도 넘게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였을것이다.

이 땅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무적의 힘을 비축한 불패의 강국으로 안아올리는것,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우리의 국가방위력, 전쟁억제력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도전이 날로 엄혹해지는 준엄한 정

세하에서 눈앞의 리익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굳건히 담보해주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신것은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병진의 길은 누구나 쉽게 걸을수 있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정정당당한 선택과 병진로선에 대해 갖은 비방중상을 일삼으며 우리에 대한 포악하고 잔인한 정치군사적압박과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려왔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떼무리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국방관련 부문은 물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략물자로부터 일반소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과 대상에 걸쳐

제재봉쇄의 그물을 촘촘히 늘이고 우리를 고립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한편 미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내몰아 우리를 엄중히 위협공갈하다 못해 지어 유엔무대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을 거들며 《완전파괴》와 《절멸》폭언을 뇌까리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말살하려고 피를 물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압박책동도 우리의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투쟁을 공격적으로,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핵무력건설을 일정표대로 어김없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갔다. 수소탄시험을 비

롯한 여러 차례의 핵시험이 단행되고 원쑤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날아올랐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2017년에만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사변들이 일어났던가.

3월에는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있었고 5월에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미싸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 그 흥분의 열도가 식기도 전에 7월에는 련발사격을 하듯 한달에 두번씩이나 쏴올린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의 대성공, 9월에는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11월에는 더 높이 비약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이 용용한 자태를 드러냈다.

조선의 맹렬한 돌진을 가로막기 위해 미국은 잡다한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냈지만 그것들은 무한궤도에 짓이겨지는 잡풀처럼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였다.

조선의 결단은 절대병기 수소탄의 위력만큼 누구도 막아설수 없는 불가항력의 진로였고 그 전진속도는 우주도 대기권도 거침없이 오르고 주저없이 뚫고 타격하는 주체탄과 같았다.

하여 조선은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그후에도 우리 조국은 남들이 엄두도 못낼 군사적기적들을 불과 1～2년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핵강국, 동방의 핵렬강으로 무섭게 비약하였다.

2021년 10월 평양에서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각종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이 전시되였다.

국방발전전람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한 일대 축전이였다.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두려워하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더욱 혹독한 고생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루어낸 하나하나의 첨단무장장비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은 공화국이 비축한 거대한 힘과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가슴뿌듯이 안아보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하신 기념연설에서 지난 5년간의 국방력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이룩해놓은 발전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디디고 더 높이 비약해 뛰여오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현시기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

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최근년간 날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국방발전상을 보고 미구에 저들이 직면하게 될 커다란 위구감을 느낀 미국은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엄중한 협박성무력시위행동들을 감행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확고히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2022년 1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석하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서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금후 사태발전은 우리 당의 결정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였는가를 보여주었다.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포악무도한 핵공갈과 경제적질식을 노린 야만적인 제재압박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 미제는 2022년에도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강화하면서 온 한해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까지 끌어들여 조선반도지역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며 화약내를 짙게 풍겨댔다.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힘이 약하면 예속되거나 사멸되여야 하는 오늘의 랭혹한 세계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는 유일한 방책은 그 누구도 범접할 엄두조차 낼수 없는 절대적힘, 세계최강의 자위력을 소유하는것이다.

당중앙의 현명한 결단과 조치에 따라 공화국은 2022년 년초부터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국가방위력을 더욱

백배로 다져나갔다.

올해에 진행한 강대한 우리 국가의 힘을 재운 첨단무기들의 시험발사들은 다시금 새롭게 도약한 자위적국방력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1월에만도 두차례에 걸치는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과 생산장비되고있는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등이 련속적으로, 공세적으로 단행되여 천만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었으며 첨단무장장비의 비약적인 발전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부문앞에 극초음속미싸일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였다.

극초음속미싸일로 말하면 세계의 몇몇

안되는 나라들이 보유하고있고 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미싸일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것으로 하여 전쟁형세를 단번에 뒤바꾸어놓는 전략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하시였다.

1월에 있은 두차례의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에서의 련속성공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또 하나의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3월에 단행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는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를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장거로 되였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민족만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절세위인께서 한자한자 쓰신 친필명령서가 하달되였다.

3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광이 지면을 불덩이같이 달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전시환경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히 증명되였다.

국가핵무력건설계획에 따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무기체계는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출현은 전 세계에 우리 전략무력의 위력을 다시한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것이라고, 이는 우리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첨단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성공은 주체적힘으로 성장하고 개척되여온 우리의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3월 24일!

참으로 이날과 더불어 우리 국가는 또 한번 강대해졌고 우리 인민은 또 한번 위대해졌다.

정의에로 그어진 화살표마냥 날아올라 불가역적인 군사적강세를 과시하며 제국주의강적들을 눈아래 굽어본 《화성포-17》형, 그 비행운은 우리 인민들에게 희망의 빛발을 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이며 천지를 뒤흔든 그 요란한 울림은 행성을 진감시킨 뢰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의 위력앞에서 적대세력들은 전률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상 북의 탄도미싸일개발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미싸일 하나로 뉴욕과 워싱톤을 동시에 핵공격》, 《본토타격에 대한 우려로 미국도 놀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에서는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대한 제나름의 평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정사실화된 공화국의 막강한 지위에 대해 전하였다.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막강한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공헌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며 후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욱 확고하고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

해진 전략적힘,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우리 당의 강력한 국방력건설의지를 다시금 피력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주체조선의 불가항력과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사상초유의 특대사변이였다.

우리 국가의 존엄, 우리 인민의 영광, 우리 군대의 백전백승의 상징인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 세계앞에 무진막강한 조선의 힘을 선언하시고 공화국정예무력을 사열하신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장군.

천만인민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원수복을 입으시고 승리의 연단에 거연히 오르신 천출명장을 우러러 목청껏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으로 진감하던 **김일성**광장.

복장과 전투장구류는 물론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데 없

는 정예무력이 종대와 종대를 이루고 연방 흘러가고 주력땅크종대, 포병무력, 초대형방사포종대와 전략미싸일종대들 그리고 공화국전략무력을 대표하는 거대한 실체가 지축을 울리며 도도히 광장을 누벼가는 장쾌한 화폭.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것이라는 것을 당당히 선언하며 기세차게 나아가는 불패의 대오.

열병광장에 노도친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과 함께 천하무적의 절대적힘을 억척으로 비축한 불가항력의 공화국무력의 발전상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4월의 열병식을 통하여 세계앞에 더욱 똑똑히 보여준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전쟁방식이나 특이한 작전에도 다 대비할수 있

는 무장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라는것이다.

하기에 어느한 신문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 대해 전하면서 《대결과 분쟁의 조종자인 미국이 조선의 자위력을 과소평가하던 시대가 영영 지나갔음을 내외에 각인시켰다.》고 하였다.

언제인가 한 군사평론가는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해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했던 미국이 이제 더는 정책전환을 하겠는가 아니면 핵불세례를 맞겠는가 하는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평한바가 있다.

미국이 이것을 망각하고 공화국의 안전과 근본리익을 계속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것이다.

남조선괴뢰패당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핵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미국에 더욱 매달려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 광기를 부리고있는것도 모자라 그 무슨 《담대한 구상》을 떠들면서 감히 우리의 국체인 핵을 어째보려고 어리석은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난 9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될뿐아니라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더욱 줄기차게 다져나가려는 주체조선의 강인한 기상의 일대 시위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담대한 정치적결단을 내

린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패권주의가 더욱 살판치는 오늘날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란 어떤 나라이며 악의 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기상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될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은 나라는 없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의 핵무력강화로정은 끝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고 핵전투무력이라는 막강한 공격태세를 담대하게 완비하고 제국주의폭제를 마음먹은대로 다스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놓으신 **김정은**장군, 우리의 위대한 장군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 불가항력적인 전진과 비약적힘의 실체를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다시금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질겁한 미국은 2022년 9월 23일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집단을 끌어들이고 여기에 섬나라

것들까지 참가시켜 각종 련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무려 보름이상이나 공공연히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 이 기간 남조선괴뢰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로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내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황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무서운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기세차게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는 미싸일들, 호수와 들판, 도로상에서 각이한 시간에, 각이한 대상과 정황을 가상하여 발사된 첨단핵타격수단들은 모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만큼 타격소멸할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막중한 군사적임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고, 이는 우리의

전쟁억제력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격화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뿐이라고, 우리는 정세위기를 항시적으로 엄격히 주시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소식은 미국을 더 큰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미국의 제노라 하는 전, 현직고위당국자들과 대조선전문가들이 우리의 핵타격능력을 부각시키며 중구난방으로 떠

들어댔다.

《북조선의 이번 군사훈련은 전술핵무기운용력량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신호를 발신한것이다.》

《남조선미국<동맹>에 전술핵위협을 가하고있다.》

《북조선의 미싸일발사는 력대 최고수준이다.》

《핵전쟁발발가능성이 5년전때보다 더 가까와지고있어 미국의 안전이 한층 위험해졌다.》

《바이든행정부의 <북비핵화>정책은 실패하였다.》

《북조선이 이미 이겼다. 쓰디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북조선과 조건없이 마주앉아 외교적경로를 모색하고싶다.》

…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소식에 혼비백산한 적들이 미쳐 정신차릴새없이 10월 12일 우리의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들은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전반의 정확성과 기술적우월성, 실전효과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위력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립증한 우리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날로 더더욱 무섭게 솟구치고 강해지

는 조선의 무비의 공격정신과 위력앞에 적대세력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인민의 배심은 하늘에 닿았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수 없게 자위의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빠진것이 없게, 부족한것이 없게 마련하시며 이 땅에서 영원히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력사에는 막강한 국방력을 비축하고 강국으로 자처하던 나라들이 령도자를 잘못 만난것으로 하여 졸지에 무너지고 강세를 떨치던 군사력은 파철더미로 된 비극적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막강한 국방력도 어떤 령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필승불패의 보검, 불가항력으로 될수도 있고 반대로 물먹은 담벽, 쓰다버린 파철로 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책임감,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절세위인을 모시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방위력은 조국수호, 인민사수의 불가항력으로, 정의의 절대적힘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며 자기 발전의 궤도를 따라 부단히 강화될것이며 앞으로 주체무기들의 련속적인 승전폭음은 이 행성을 더욱더 진감시킬것이다.

이 철리를 온넋으로 받아들인 우리 인민은 소리높이 웨친다.

불세출의 천출위인,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더욱 강해질것이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위력을 떨치며 지구의 중심에 우뚝 솟아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우리는 지금 건국이래 가장 간고한 시기를 경과하고있다. 우리앞에 련이어 닥쳐온 난관들은 다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사상최악의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은 주저하거나 쇠진해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강해지고있으며 줄곧 확고한 승세와 상승일로를 견지하고있다. 이것은 세계가 자못 놀라와하는 실재한 조선의 발전면모이다.

하다면 무슨 힘이 그렇듯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떠밀어주는것인가.

그 원동력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된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자력갱생, 이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이 생명선으로, 생활로, 희망으로 간직한 불굴의 신념이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어제만이 아니라 자랑찬 오늘 그리고 더더욱 찬란할 래일의 모습이 이 긍지높은 부름속에 다 비껴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그 전 과정이 자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운 긍지높은 력사이다. 전진도상에 언제 한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지 않은적이 없었지만 우리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자기 힘으로 조선민족의 본때와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부강조국건설의 한길로 달려왔다.

전후 재더미우에서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던 원쑤들의 궤변을 천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짓부시며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

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은것도,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던 시기에 적대세력들이 짜놓은 붕괴시간표를 번영의 시간표로 바꾸어놓을수 있은것도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준 자력자강의 정신,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좌우명, 생존방식으로 삼았기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남을 쳐다보며 그에 의존하려고 하였더라면 그리고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지 못하였더라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력갱생, 자강력이야말로 일심단결, 무진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3대기둥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력갱생은 결코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가장 투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 강의

한 실천력이 없으면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것이 자력갱생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풍부한 자원과 재부,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제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를 걸며 사대와 굴종의 길을 걷고있는것은 제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제힘으로 살아나가려는 결사의 의지를 지니지 못했기때문이다.

자기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갈 때만이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길이자 자존과 번영의 길이다. 자력으로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이 력사의 철리, 혁명의 진리가 다시금 확증된 뜻깊은 나날이였다.

지난 10년간은 공화국의 장구한 행로에서 겪어온 무수한 고난과 애로를 초월하는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 도전들이 겹쳐든 시기였다.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이고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며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오시였다.

그이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인민들에게 보내시는 신년사마다에서, 공화국의 진군로를 밝히는 력사적인 회의마다에서 천만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신것은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이였고 찾으시는 일터와 고장들마다에서 제일 기쁘게 안아보시고 내세워주신것도 바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자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국면, 비상한 장성속도를 요구하는 새시대에 들어섰다. 우리 당은 5년을 주기로 한번씩 크게 도약함으로써 멀지 않은 앞날에 전체 인민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였다.

다 알다싶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전망목표를 수행하면 2025년말에 가서 2020년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3배이상 장성하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고 다음단계의 보다 거창한 투쟁에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담보로 된다.

문제는 이 방대한 과업을 최악중의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 준엄한 형세속에서

수행하여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조성된 조건과 환경은 남들 같으면 사회적인 대혼란과 국가의 붕괴까지 초래하고도 남는것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엄격하고 강도가 높은 방역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규정을 확립하였다. 나라들사이의 무역활동과 교류협조가 경제발전의 필수적조건으로 공인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국가가 취한 대응책은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내릴수 없는 대용단이다.

뜻깊은 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신께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

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는것을 제기한다고 하시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

여기에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려정에서 인민의 힘을 더욱 굳게 믿고 오직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려는 우리 당의 드놀지 않는 결심이 어려있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든든한 자신심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제손으로, 제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인민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령을 높이 받들고 민족자존과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2021년을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수 있었다.

당의 령도따라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다그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인민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자력자강의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러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장려하고 확대하여 2022년에 더 큰 성공과 승리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오는것은 강국건설의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이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기는것을 2022년에 우리 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난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억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지난해와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나갈

것이 아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자력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시련기를 겪고있다. 한 나라, 한 인민이 겪어내기에는 너무도 많은 난관이 중첩된 이해의 간고함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실로 힘겨운것이였다. 예상했던 시련보다 돌발적인 난관이 더 많았고 감당할수 있는 곤난보다 힘에 부친 역경이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면 뚫지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부닥치는 만난시련을 완강한 투쟁력으로 강행돌파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맞다

든 방역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를 몰랐다. 악성전염병의 전파로 하여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은 사상최악이였지만 우리 인민은 비관에 빠져 남을 쳐다본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누구나 억척의 의지와 강의한 힘으로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압축하며 백배로 분투하였다. 그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창조의 거대한 힘이 분출하였다.

그 자랑스러운 진군대오의 앞장에는 전야의 농업근로자들이 서있다.

농업전선은 모든 승리와 기적을 굳건히 담보하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이다. 설사 다른 부문에서라면 뒤떨어진것을 후에라도 보충할수 있겠지만 농업부문에서 영농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나라의 쌀독이 비게 된다. 그 후과는 무엇으로써도 보상

할수 없는것이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시기는 한해 농사에서 제일 품이 많이 들면서도 절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영농공정, 해마다 온 나라가 떨쳐나 도와주던 모내기를 당장 눈앞에 둔 때였다. 부지깽이도 뛴다는 드바쁜 영농시기였지만 지역별, 단위별로 봉쇄, 격페된 속에서 국가적인 로력지원도 예정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사회주의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책임감과 불굴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맥동쳤다.

우리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다. 쓰러지는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모내기를 끝내여 당을 받들자!

온 나라 농촌이 무섭게 들고일어났다.

사회주의농촌의 그 어디서나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철야전이 벌어졌다. 집으로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포전에 잠자리까지 옮긴 사람들, 온종일 땀흘리며 모를 내고도 열병으로 앓아누운 분조원들의 몫까지 일을 제끼느라 포전을 떠나지 못하던 사람들, 몸이 채 추서지 못한 속에서도 한밤중에 포전으로 달려나온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한들 앉아서 벼모야 뜨지 못하겠는가고 하며 자식들보다 먼저 집문을 열고 나서는 년로보장자들도 있었다. 온 전야가 비상한 각오와 투지, 애국의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모내는기계의 손잡이를 총가목마냥 억세게 틀어잡고 포전에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한 그들이였다. 쓰러지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전을 떠날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갈이 든 입술을 악물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치렬한 철야전을 벌리는 농업근로자들, 그

불같은 모습은 격전전야에 나선 병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2022년에 기어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열의로 충만된 농업근로자들은 이렇듯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열병도 이겨내고 방대한 모내기과제도 순수 자체의 힘으로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 김매기 등 시기별영농작업을 질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력을 비롯하여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자연의 광란 또한 우심했지만 난관을 박차고 일떠선 그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 다수확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전국의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

하였다.

곳곳의 대건설전역들이며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부문 등 그 어느 부문과 단위들에서나 자체의 힘으로 설정된 목표를 완수하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용솟음쳤다. 방역학적요구가 더 엄격해지고 로력보장, 수송과 자재보장이 여느때보다 곱절로 곤난하였지만 일별, 순별, 월별생산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정체를 막고 올해 목표달성에로 크게 전진하였다.

자력갱생의 대진군속에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자립적발전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다.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무수한 난관과 도전들을 성과적으

로 격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장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자면 우리의 내부적힘을 끊임없이 증대시켜야 하며 여기에서 인민경제의 정비보강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2022년에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세련시키고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상공사를 밀고나가며 발전능력을 끌어올리는것을 비롯하여 해당 부문들의 생산활성화와 정비보강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현행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지속적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조건이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남의 도움을 바란다면 언제 가도 경제를 추켜세울수 없다.

전체 인민이 당의 뜻대로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개척해나가려는 자각, 단위와 국가발전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각을 안고 정비보강에 사활을 걸고 발벗고 나섰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에서 현행생산을 내밀면서 전망적으로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게 새로운 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며 필요한 공정들을 보강하는 사업이 추진되였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발전을 제손으로 이룩하려는 결사의 투신력, 정확한 방도를 찾아 빠른 기간에 실현해나가는 지혜와 열정이 높이 발휘되였다. 특히 지난 시기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까지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 부문과 단위의 발전에 필수적인 일감들에 대담하게 착수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발동해

나가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대보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배수계통이설을 계획적으로 완강히 추진하여 생산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재령광산, 탄산소다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공사를 결속하고 대규모탄산소다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음으로써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를 구축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그 어느 단위에서나 정비보강목표실현에 생산계획완수의 길도 있다는 관점밑에 정비보강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하였다. 이것은 곧 그대로 생산활성화에로 이어지고있다.

2022년 인민경제계획을 9월 16일까지 앞당겨 수행한 천리마타일공장의 경우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올해 이 공장앞에는 그 전해보다 1.2배로 높아진 생산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섰다.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바람이 일고있는 대건설전구마다에서는 더 많은 타일을 생산하여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 그것도 더 빨리!

그러자면 결정적으로 생산흐름선을 더 늘여야만 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방대한 과제인가를 누구나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투지와 각오를 안고 생산능력확장공사에 진입하였다.

공장설계, 자재확보, 설비제작 등 새로운 생산흐름선설치를 위한 작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마침내 공장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생산흐름선에서 고르로운 동음이 울리자 하루 타일생산량은 부쩍 오르기 시작하였다.

하여 그들은 로력과 원료, 자재, 설비 등이 완벽하게 보장된 조건에서 모든 공정이 만가동해야 달성할수 있다고 하던 년간계획을 한두달도 아닌 무려 석달반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현행생산활성화와 정비보강사업의 추진과정은 곧 새 기술개발과 도입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 하나하나가 튼튼한 인재력량과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다.

오늘의 엄혹한 조건과 환경에서 발전가능성을 조성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도는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데 있다.

하기에 어느 부문이나 단위나 할것없이 과학기술혁신과 발전을 생산활성화와 정비보강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연구단위와 긴밀히 협동하고 자체과학기술력량을 부단히 증대시키며 새 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달라붙고있다.

화력타빈날개제작과정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타빈날개를 우리의 기술로 제작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전력해결의 명줄이 과학기술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전력공업부문과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자존의 배짱과 담력으로 화력타빈날개제작을 위한 고심어린 탐구의 길에 서슴없이 들어섰다.

수십차례에 걸치는 실패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끝끝내 화력타빈날개를 만들어내고야말았으며 모험이나 같은 운영시험을 대담하게 진행하여 성공을 안아왔다.

이들이 거둔 성공은 그 어떤 과학기술성과보다 먼저 기어이 우리의것을 창조하려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우리들이 이번에 다시금 절감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자존심과 신념만 투철하면 얼마든지 남보다 더 훌륭한 우리의것을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은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속에서 자기 힘과 기술을 굳게 믿고 결사적으로 투쟁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켜낸 참된 애국자들의 심장속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는 신념의 웨침이였다.

이런 신념과 의지, 지칠줄 모르는 지혜와 열정으로 이들은 무중유착화기술도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화력발전소의 대형보이라들에 도입함으로써 전력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단위발

전의 길을 열고 생산활성화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이다.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의 활로를 열고 더 밝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투쟁속에 지방이 변하고 농촌이 부흥하는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지난 6월에 강원도 김화군에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개건현대화된 김화군의 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들은 철저히 군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말그대로 자력자강의 산물이다.

지방공업발전에서 실제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하려는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본보기적실체로서의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은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척박한 산골군인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의 눈부신 전변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조선로동당이 결심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모든 투쟁과 업들은 반드시 변혁적실체로 전환된다는 진리를 새겨주며 온 나라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해주고있다.

지금 이곳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우리가 고생끝에 주저앉기를 바라는 적대세력들이 기절초풍하게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줄기차게 울려가고있다.

얼마전에 강원도 생활필수품전시회에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었는데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제품들의 질이 좋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김화군의 눈부신 전변은 다른 모든 시, 군들의 분발력을 고조시켜 지방공업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도 김화군의 전변을 소개하면서 공화국에서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을 본보기로 《지방균형발전에 더욱 속도를 낼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하였다.

우리 당이 펼쳐가고있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또 얼마나 많은 변혁적사변들이 일어나고있는가.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놓으려는 당의 구상과 결

심에 따라 일떠선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과 황남땅에 펼쳐진 농기계바다, 세계최대규모의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식과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사회주의리상촌들…

이 모든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안아온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 실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날이 강화발전되고있는 우리의 자립경제는 국가부흥의 자랑찬 실체들을 련이어 낳고있다.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전변상과 발전상, 나날이 늘어나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투로 밝은 미래를 당겨오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걸음걸음 앞길을 가로막는 모진 시련

과 난관속에서도 오히려 더 높이 일떠서고 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 거세찬 숨결, 불가항력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은 나날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　　　*

전대미문의 난국을 과감히 뚫고 전진해온 2022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더더욱 깊이 새겨안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는 절대의 진리이며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고 천만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애국열을 최대로 발양시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특대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안아오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은 불가항력이다.

불 가 항 력

집 필 림 정 렬
편 성 리 경 순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11월 28일
발 행 주체111(2022)년 11월 30일

ㄱ－1561ㄷ